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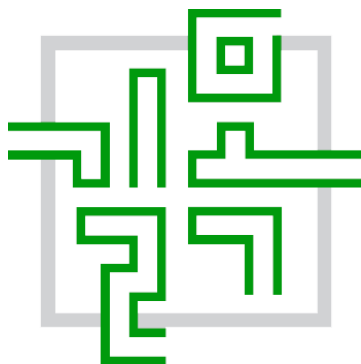


2013

오키나와 평화기행



이 자료집은 평화의 씨앗을 품은 _____의 것입니다.



< 주문 >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엔 너와 나는 간데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엔 너와 나의 미련 없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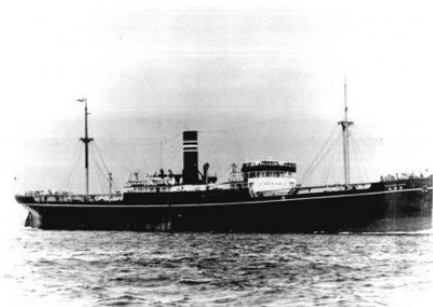


아사도야 윤타 安里屋ユン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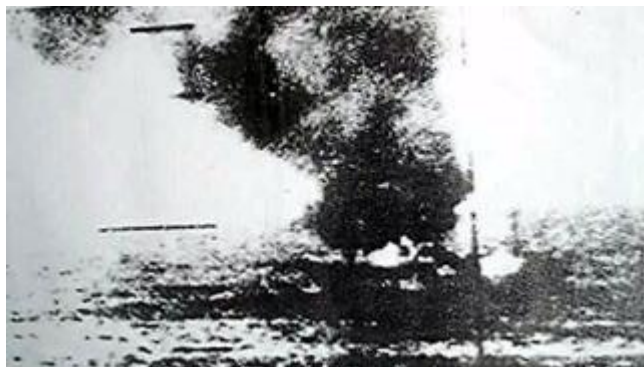
전통 오키나와(류큐) 민요를 대표하는 노래는 "安里屋ユンタ(아사도야 윤타)"입니다. "윤타"는 노동가(労働歌)라는 뜻입니다. 근대 이전부터 섬 사람들은 류큐말로 부르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류큐 왕부(琉球王府)에서 외딴섬인 야에야마섬에 파견된 어느 관리와 섬의 미녀의 사이에 있던 남녀의 주고받음을 재미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는 연애 노래로 각색하여 일본말(표준어)로 부른 "아사도야 윤타"가 일본 전토에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쇼와 19년(1944) 8월,
수업을 막 마치고 오키나와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배로 피난하라는 소식을 듣고,
소개선 "쓰시마마루(対馬丸)"를 타고 본토로 가던 도중
가고시마현 아쿠세키지마 부근에서 미 해군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승객 약 1800명 중 학생 775명을 포함한 1418명이 희생되었고,
지금도 배와 함께 해저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애니메이션 <츠시마마루, 오키나와여 안녕!>으로 만들었습니다.
츠시마마루 기념관(対馬丸記念館)<<http://www.tsushimamaru.or.jp/>>





태평양 전쟁 오키나와 전에 간호 요원으로 동원된 오키나와 사범학교 여자부·현립 제일고등여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된 히메유리 학도대.

비참한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해산 명령을 받게 되자
소녀들은 미군에게 포위당한 채 전쟁터에 내버려지고,
여기서 많은 소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자료관에는 히메유리 학도대의 영정과 유품,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실물 크기로 재현한 방공호 모형 등이 있어 당시의 비참한 상황과
생존자의 증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히메유리 자료관 <<http://www.himeyuri.or.jp/>>

영화 <히메유리의 탑>은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오키나와 전투(Battle of Okinawa)란 1945년 오키나와 제도를 둘러싸고 1945년 3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벌어진 태평양 전쟁 최후의 대규모 지상 전입니다. 연합군측 명칭은 Operation Iceberg입니다.

이 전투로 발생한 일본측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188,136명이며, 이중 오키나와 출신이 122,228명이고, 민간인 사망자도 94,000명에 달합니다. 미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12,520명이며 부상자는 72,000명입니다.

미군은 이 전투에서 태평양 전쟁 최고에 버금가는 피해를 냈으며, 일본 측에서는 사령관, 군인 뿐만 아니라 그곳 주민들까지 전원 옥쇄해 가족끼리 서로를 죽이거나 수류탄으로 자결하는 등 갖가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오키나와평화기념공원 <http://www.peace-museum.pref.okinawa.jp/>



산신의 꽃 / 비긴

마루에서 생일 축하로 오키나와 술에 취해있는데,
잊고 있었던 삼촌의 유품, 산신이 보였다.
먼지를 손가락을 털어내고 풀어진 실을 조인다.
참을 수 없는 지루함에 오키나와의 노래를 부른다.
선명하게 삼촌이 살았던 날들이 되살아난다.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내 가슴의 틈을 뚫고 나오는 것은
바로 산신의 꽃.

비스듬히 누워 티비를 바라보던 삼촌의 자리에 앉으니,
알루미늄 창밖에 저녁 달이 비춘다.

가족을 바라보며 마시던 그 술은 어떤 맛이였을까?

잠들기 전에 부르던 그 노래는 누구의 노래였을까?

기쁨도 슬픔의 날들이 노래로 되어 버리는 이 오키나와의 흠에서

가을을 울며 참고, 겨울을 견디고 봄에 피는 것은

바로 산신의 꽃.

오키나와의 하늘도 바다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오키나와에 따뜻한 바람이 되어 비를 부르고 피는 것은

바로 산신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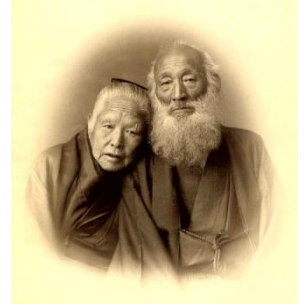
오키나와 전통 악기: 산진



오키나와 출신 그룹: 비긴

한 눈에 보는 오키나와 역사

- ◆ 지방 호족 중심의 중산, 북산, 남산: 삼산 시대
- ◆ 중산의 쇼하시, 삼산 통일
- ◆ 14세기 류큐국 건국
- ◆ 제 1 쇼씨 왕통 : 쇼하시 왕
지방 호족의 강한 세력
왕권 미약, 끊임없는 내란
- ◆ 제 2 쇼씨 왕통 : 쇼엔 왕
일본, 조선, 중국, 동남아시아 무역 활발
- ◆ 16세기 후반 명나라, 스페인, 포르투갈 세력 확장
류큐 세력 쇠퇴
- ◆ 1609년 사쓰마 번 침공
아마미 제도 침탈
류큐국 일본의 조공국으로 전락
- ◆ 청, 일본 이중조공 및 중계무역으로 번성
외교 노선: 아버지 중국, 어머니 일본
- ◆ 18세기 말 경제 악화
- ◆ 19세기 중 서양이 중국과 일본에 개항 압력
중계무역 거점으로서의 지위 박탈
메이지 정부, 류큐왕을 도쿄로 강제 이주, 후작에 봉함
류큐 처분: 류큐국 병합, 오키나와 현 설치
- ◆ 일본 패망 이후 27년간 미국 점령
일본 영토로 반환



* 1600년 대 사츠마번 예속화 이후, 섬 분리가 일어나 그 아픔을 노래한 곡

친다라부시

당신과 나는
사랑하는 이와 나는
젖 먹던 시절부터 놀이동무
어린 시절부터 친한 동무
섬에 있는 한 하나라 생각했는데
고향 있을 적엔 하나라 생각했는데
후스마에 있을 때는
사후지마에 있을 때는
섬은 하나였는데
동리는 하나였는데
모시짜는 밤에도 나와 둘이서
유이할 때도 나와 둘이서
산에 갈 때도 나와 둘이서
해변에 갈 때도 나와 둘이서
이별하고픈 맘 나는 없는데
떨어지고 싶은 맘 나는 없는데
당신과 하나라 생각했는데
나와 하나라 생각했는데



오키나와에서의 지시가
임금님의 목소리가
섬을 갈라 놓으라 하시네
고향을 갈라 놓으라 하시네
당신은 나와 함께 가지 않고
후스마에 남겨지고
나는 저분과 함께 있지 못하니
마을 밑바닥으로 헤어져
울며 울며 헤어져
지금도 헤어져
보고 싶어도
나는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단 말 전할 수 없어라
당신에게 전할 수 없어라.

오키나와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

오키나와 민족 독립종합연구학회 설립취지

… 반면에 1609년의 사츠마의 침공으로 시작하여, 1879년 메이지 정부에 의한 오키나와 병합 이후 현재까지, 오키나와는 일본,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

일본인은, 오키나와를 희생시켜,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계속하여 향유하려고 있다. 이대로는 우리 오키나와민족은 앞으로도 자손만대까지 평화롭게 살 수 없고,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 오키나와민족은 원래, 독자적인 민족이며, 국제법에 보장된 「인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주체이다. …

오키나와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오키나와 독립 종합 연구학회를 설립한다.

(2013 年5 月23 日 現在)

제 1회 학회대회 및 총회

2013년 10월 26일 - 27일, 오키나와 대학교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a/acsils.org/dokuritsu/>

**琉球民族独立総合研究学会
設立記念シンポジウム**
Association of Comprehensive Studies for Independence of the „New Chuwans

日時: 2013年5月15日(水)18:30-20:30
場所: 沖縄国際大学7号館-201号室 参加費: 無料

「琉球民族が植民地という『苦世（にがゆー）』から脱し、独自の民族として平和・自由・平等に生きることができる『甘世（あまゆー）』を一日も早く実現させるために本学会を設立し、琉球の独立を志す全ての琉球民族に参加を呼び掛ける」
(琉球民族独立総合研究学会設立準備会より)

プログラム
・開会の辞、学会設立宣言と乾杯 (さんびん茶を用意します)
・スピーカー: 石垣金星 (西表をほりおこす会代表)
安良城米子 (沖縄国際大学非常勤講師)
宮里康佐丸 (琉球語の先住民協会代表)
・これからの活動について (ACSILS設立準備委員会)

主催: 琉球民族独立総合研究学会設立準備委員会 問い合わせ: 同上TEL/FAX050-3383-2609 メール: info@acsils.org

오키나와 사람들의 보물 / 비긴

1. 내가 태어난 이 섬의 하늘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반짝이는 별들도 흘러가는 구름도 이름을 들어도 모르네.
하지만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몇 번이고 올려다보았던 이 하늘을.
교과서에 쓰여있는 것들로는 알 수 없는
소중한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오키나와 사람들의 보물.



2. 내가 태어난 이 섬의 바다를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오염되어가는 산호들과 줄어가는 물고기를 어찌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네.
하지만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모래투성이가 되고 파도에 흔들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이 바다를.
텔레비전에도 나오지 않고 라디오에도 흘러나오지 않는
소중한 그 무엇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오키나와 사람들의 보물.

3. 내가 태어난 이 섬의 노래를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투바사마도, 덴사부시도 가사를 들어도 뜻을 알지 못하네.
하지만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축하의 밤에도, 축제의 아침에도 어디서든지 들려왔던 그 노래를.
언젠가 이 섬을 떠나게 될 그 날까지
소중한 것들을 꼭 마음 깊이 알고 싶네.
그것이 바로 오키나와 사람들의 보물.

* 투바사마, 덴사부시 : 오키나와 전통 노래

출처: <http://peacenomad.net/textyle/21874>



...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보며 이곳들이 한국의 미군기지과 하나임을 그리고
강정의 해군기지 사업이 헤노코의 미군 해군 기지 사업과 하나임을 알 수가 있
었다. 그리고 실제로 한일민중 연대의 토미야마 회장님은 헤노코 투쟁이 지금
까지는 성공적이어서 미군의 해군기지가 강정으로 옮겨갔음을 미안하게 생각
하고 있었다. 너무나 아름답기에 너무나 아픈 오키나와 그리고 강정. 이 두 곳
에서 모두 제국주의의 헛된 야망을 느끼게 된다. 무기로 세상을 지배하러 하는
스스로 강하다 말하는 나라들의 더러운 욕망과 하느님의 아름다움의 손길이
상반된 두 곳.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학살당하였고 지금도 학살
되어지고 있는 민중은 어디로 가야 한다 말인가? ...

왜 오키나와인가?





* 1600년 대 사츠마번 예속화 이후, 섬 분리가 일어나 그 아픔을 노래한 곡

오보이케마 섬에서

섬을 분리한단 말 들었는데

아마 남의 일이겠거니
타인의 일이겠거니 여겼는데
바로 내게 닥쳐왔네
만약 어머니 돌아가실 즈음에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
보내줄까
작은 배로
돛단배로
보내줄까



2013 오키나와 평화기행 일정

10월 10일

인천공항 집합

인천 출발, 나하 도착

점심식사

히메유리 자료관, 한국인 위령탑,

평화의 초석, 오키나와 현립 평화자료관

저녁식사

기노완 센터 도착

교류회(오키나와 스태프, 평화기행 OT)

10월 11일

아침 기도회

아침식사

기노완 센터 출발, 페리항 도착

도카시키 섬 도착

아리랑 비, 강제집단사 유적, 백옥의 탑 등

희생자들을 위한 예배

도카시키 섬 출발

나하 도착, 기노완 센터 도착

저녁식사

교류회(오키나와 대학생)

10월 12일

아침 기도회

아침식사

헤노코

점심식사

츄라우미 수족관

저녁식사(이시미네 식당: 류큐 음식)

평가회

10월 13일

아침식사

자유시간

주일예배(관광: 슈리교회)

슈리성, 나하시 국제거리 관광

저녁 외식

10월 14일

아침 기도회

아침식사

기노완 센터 출발, 나하공항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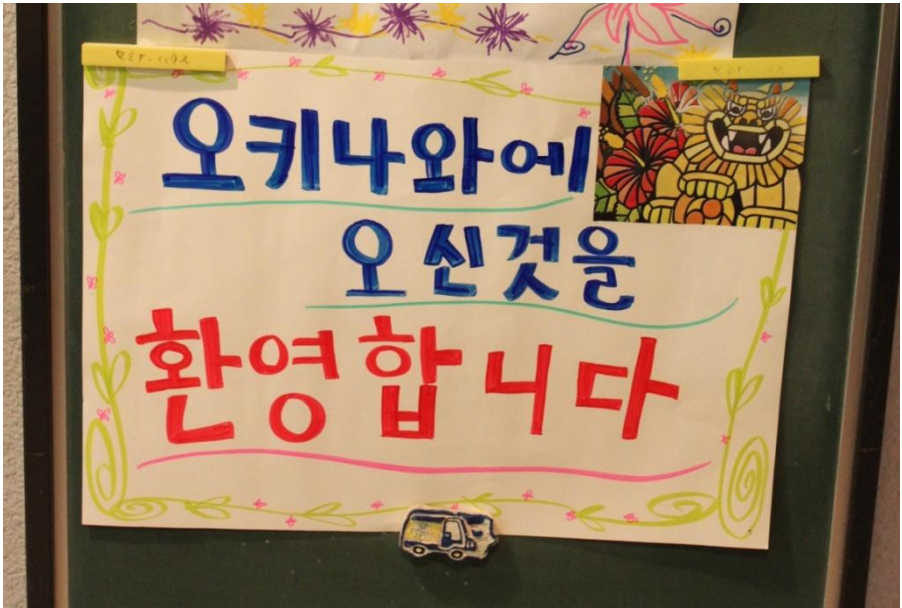
나하 출발, 인천 도착







감성소녀지현의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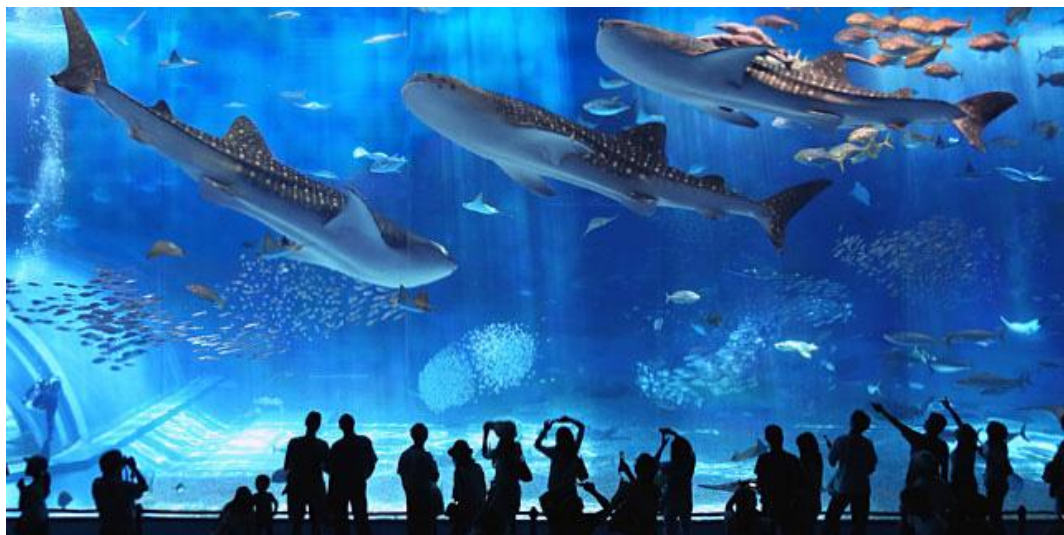






















2013 오кина와 평화기행







10/10(목)	08:30	인천공항 집합
	09:30	기타를 뱀—이와 도해(12:30)
	14:00	평화기념관
	15:00	평화기념관—한글문화원—평화기념관—오카나와 평화 평화기념관
10/11(금)	08:00	아침 점심
	08:30	아침 식사
	09:00	기타를 뱀—이와 도해(10:00)
	10:40	아리랑, 관세암에서 유적, 박물관 등
10/12(토)	08:00	아침 점심
	08:30	아침 식사
	09:00	기타를 뱀—이와 도해(10:00)
	10:40	아리랑, 관세암에서 유적, 박물관 등
10/13(일)	08:00	아침 점심
	08:30	아침 식사
	09:00	기타를 뱀—이와 도해(10:00)
	10:40	아리랑, 관세암에서 유적, 박물관 등
10/14(월)	08:00	아침 점심
	08:30	아침 식사
	09:00	기타를 뱀—이와 도해(10:00)
	10:40	아리랑, 관세암에서 유적, 박물관 등



와닿는 곳으로

